



"중놈은 장이라도 죽으니 무덤이 있나 사니 상투가 있나"

뜻: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,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것조차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르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업신여김 · 결핍 · 소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중	놈	은	장	이	라	도			
죽	으	니	무	덤	이	있	나		
사	니	상	투	가	있	나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중	놈	은	장	이	라	도			
죽	으	니	무	덤	이	있	나		
사	니	상	투	가	있	나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자로] [자로르] [자로] [모로] [올] [사] [사투] [올]

웹에서 보기

